

AI Fuhr 박사, 전도서, 세션 4

© 알 푸어(AI Fuhr)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지금까지 우리는 주제별 모티프 중심의 접근 방식으로 전도서를 살펴보았지만, 전도서를 해석하고 읽는 데 있어서 삶의 무거움을 이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삶의 무거움이 반영하는 다양한 의미, 삶이 일시적이라는 사실, 덧없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늙어가고 무덤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코헬렛이 고민하는 삶의 무거움의 한 요소 또는 측면입니다. 우리는 무거움의 딜레마에 대한 어떤 해결책도 달성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력, 즉 허영심이 그 자체로 무겁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헛되고 헛된 일입니다. 우리는 전도서에서 그 사실이 반영된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인생이 종종 터무니없다고 여겨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세상, 이 타락한 존재의 세계에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인간 이성에 대한 모욕이며, 코헬렛은 그것 역시 무겁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서 전체를 통해 코헬렛이 크게 괴로워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가 이러한 것들을 관찰하고 그것에 대해 반성하고 경험할 때 큰 불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지혜와 이 세상의 무거움과 타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가 테이블에 가져올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도 그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완전히 좌절했습니다. .

그리고 그가 삶의 부조리함을 관찰할 때, 그리고 그가 문제를 해결하거나 해결책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하는 어떤 종류의 능력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볼 때, 그것은 그를 크게 좌절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그가 주먹을 치며 이런 일들에 대해 큰 분노를 표하는 것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서를 읽으려면 삶의 무거움을 이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또한 태양 아래의 관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코헬렛의 여정은 수평적 관점에서 취해진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퇴보한 관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그가 우상 숭배자이거나 하나님의 추리와 반대되는 인간의 추리를 사용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현명한 현자로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뜻일 뿐입니다. 오히려 그는 현자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통해 관찰을 하고 있지만, 어떤 종류의 계시 지식을 하늘에서 직접 문제에 내려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성경 전반에 걸쳐 이에 대해 더 많이 보게 됩니다. 확실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헤벨의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계시를 통해 오고, 그리스도를 통해 옵니다.

우리는 또한 전도서에서 지혜의 모티브가 이해하는 데 매우 필수적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실제로 코헬렛은 내가 Yitron 이라고 부르는 Hevel의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전도서 전체에서 주기적으로 발견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는 이득, 잉여 또는 이익으로 다양하게 번역됩니다. 나는 코헬렛이 그의 지혜 여정에서 찾고자 하는 Hevelness 의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을 반영하는 다소 수수께끼적이고 다소 어려운 용어를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여행을 시작하면서 하는 일은 지혜의 렌즈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1장과 2장에서 코헬렛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지혜를 통해 수행되고 있으며 자신의 지혜가 자신을 떠나지 않았으며 지혜에 있어서 다른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고 다시 한 번 선언하는 것을 적어도 네 번 봅니다. 우리는 또한 전도서 전체에 걸쳐 지혜가 탐구되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선하다고 여겨지며 인류에게 좋은 일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확실히 어리석은 것보다 낫지만 궁극적으로 지혜는 그러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전도서 8장 16절과 17절에서 코헬렛은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 사람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을 관찰할 때에 사람의 눈이 밤낮 자지 아니하더니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다 하였느니라.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찾으려는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도 자신이 안다고 주장한다면 실제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끝에서 코헬렛은 지혜가 무엇인지,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관찰하면서 비록 현명한 사람이 탁월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그는 결코 하나님과 같은 것을 갖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에 오히려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극적으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는 모른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미래를 알고 미래를 지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자신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다음 모티브를 가져다 줍니다. 다음 주제는 좀 더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실제로 전도서를 읽어 보면 그것이 매우 실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코헬렛이 헤벨의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때, 그는 인간이 타락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Hevelness를 탐구하고 지혜가 찾을 수 있는 Yitrone이 없을 수도 있음을 발견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는 tov, 선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 문학에서 기대할 수 있는 매우 실용적인 사고의 흐름에 들어갑니다. 코헬렛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이점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탐구합니다. 타락하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인간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매우 실용적이다.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의 지혜 현자들은 실용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문제도 다루었습니다. 확실히 전도서의 신학적 질문의 맨 앞에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유한한 필멸의 인간 사이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것은 둘 사이에 큰 틈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코헬렛이 고대 이스라엘의 맥락에서 심지어 고대 이스라엘의 제의적 또는

의식적 존경의 요소 중 일부에 들어가는 5장 1-7절에 반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입으로 서두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 말을 적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큰 틈은 주권자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타자, 그리고 비록 그의 지혜가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사이에 있으며, 이 큰 틈이 탐구됩니다. 신학적 인류학, 즉 전도서에 나오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제가 접한 용어 중 하나는 주권적으로 부과된 제한입니다.

즉, 인간이 이 타락한 세상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에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과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기적으로 사람에게 바벨탑의 순간이 없다는 것과 가장 높은 하늘에 도달할 수 없으며 자신의 주권적인 날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일에 최종 결정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인류에게 부과된 제한 사이의 이러한 긴장은 전도서의 가장 앞부분과 중심에서 탐구되는 신학적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제 확실히 우리가 이 긴장을 탐구하면서 우리는 전도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학과 인간의 신학이 서로의 관계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에 하나씩 살펴보는 것이 조금 더 쉽기 때문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인간을 다스리는 주권자, 완전히 다른 분, 완전히 초월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코헬렛이 말하는 바를 탐구해 보세요. 전도서에는 하나님이 약 40번 언급되는데, 흥미롭게도 그분은 한결같이 엘로힘으로 언급됩니다. 영어 번역에서는 대문자 G를 사용하여 하나님으로 번역되었으며, 물론 유일한 참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에 대한 언약의 이름으로 이해되는 네 개의 히브리어 자음인 언약의 이름인 야훼(Yahweh)는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것을 영어로 Yahweh로 발음하며, 심지어 일부 영어 번역본도 이제 4중문자를 Yahweh로 번역하거나 음역합니다. 실제로 전통적으로 Yahweh를 Lord로 번역하지만 네 글자가 모두 대문자인 영어 번역본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대문자 L로 대문자로 쓰지만 ORD로 쓰지 않는 아도나이(Adonai)와는 구별됩니다. 어쨌든 전도서에서는 야훼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관찰로부터 도출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전도서가 하나님에 관한 신학에 있어서는 확실히 정통적이지만, 야훼와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의 관계적 측면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사실 전도서는 하나님과 모든 인류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것처럼 보이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느 정도 거리감을 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도서의 나머지 부분과 완전히 일치하는 비정통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의 한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선지자에게서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관계적 의미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서 당신은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슬퍼하는 버림받은 남편으로 묘사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오래 참으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한 거의 연민에 가까운 감각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도서에서는 그것을 찾을 수 없지만 선지자들에게서는 찾을 수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위대하시며, 선택하시지만,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전도서가 정통적이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성경 전체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관계와 존재의 모든 측면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전도서에는 기도의 언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도서의 지혜는 확실히 하나님께 합당한 경외심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인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으며, 그러한 관계적 의미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야훼보다는 엘로힘을 강조하는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임박하지 않았다거나 인류사에 활동하지 않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제가 방금 읽은 구절은, 하나님 앞에서는 입으로 서두르지 말고, 마음으로 조급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 말을 적게 하라 이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이며, 그분은 인류사에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점에서 완전히 초월적인 이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실, 전도서의 코헬렛 책에서 당신은 하나님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는 지혜로운 사람이 인류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묵상 중 일부에서 당신은 인간이 행하는 일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인생을 즐기라(Enjoy Life Refrains)의 2장과 24절에서는 이것이 종종 반영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자기 일에서 만족을 찾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은 없느니라.

내가 보기에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니 하나님 없이는 누가 먹으며 즐거움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선한 느낌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다는 것을 암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지식과 행복을 주시지만, 죄인에게는 재물을 모아 모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넘겨주는 일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관련되어 있지만, 전도서에서는 하나님을 주로 초월적인 존재로 묘사합니다. 전도서에서 하나님에 관해 말하는 것이 있다면, 강조되는 것은 분명히 그분의 주권입니다.

이것을 반영하는 구절들을 빠르게 살펴보면, 실제로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전도서의 맨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1장과

15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반영하는 이러한 진술 중 많은 부분이 전도서의 속담에서 발견됩니다. 1장 15절, 꼬인 것은 곧게 할 수 없느니라.

부족한 것은 셀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의미하며, 다시 말하면 인류에게 제한을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뒤틀어 놓으신 것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6장 10절에는 존재하는 것마다 이름이 이미 알려졌고 사람이 무엇인지 알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보다 강한 자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심지어 현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의 주권적 결정을 뒤집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7장과 13절, 이것은 실제로 훨씬 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할 수 있겠습니까? 1장과 15절을 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좋을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울 때에는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코헬렛이 책에서 자주 반성하는 것인데, 인간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 강의 중 하나에서 말했듯이, 자신의 내기를 헤치고 현명한 결정과 투자 및 인생과 관련된 다른 일을 하는 현명한 사람조차도 미래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당신이 내리는 결정이 무엇이든, 인생에서 앞으로 나아갈 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든, 당신은 실제로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미래는 결정하는 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우리는 9장과 11절, 12절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더 많은 성찰을 발견합니다.

나는 태양 아래에서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경주는 빠른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전쟁은 강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음식은 지혜로운 자에게 주어지지 않으며, 부는 명석한 자에게 주어지지 않으며, 유식은 자에게 은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맥락에서 전도서의 주제적 맥락이 여기에 함축된 어떤 시간과

우연이 유신론적 개입에 결여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코헬렛이 여기에서 다루고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임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9장 12절, 자기의 때가 언제 올는지 아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여기서 곧 탐구하게 될 주제인 죽음의 불가피성에 대해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잔인한 올무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라미에 걸리듯이, 인간도 예기치 않게 닥치는 악한 시대에 갇히게 됩니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이 현재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미래를 결정할 능력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코헬렛에 있어서 우리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주권이 아니라 그분의 감성과 정의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욥기와 많은 부분이 일치한다. 욥은 자신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개입에 대해 결코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욥에게 있어서 질문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회계제도를 어디에서 망쳐놓으셨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구약성서의 지혜현자들은 삶의 무거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러한 신학적 딜레마를 다루었습니다.

타락한 세상에는 인간의 이성을 모욕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며, 인류의 일에 개입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면 더욱 문제가 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신학과 관련하여 물론 전도서의 인간학인 인간 신학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제안했듯이, 코헬렛이 관찰한 주요 문제는 인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필사자이기 때문에 제한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필멸성에도 제한이 있으며,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인간에게 부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를.

그러므로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성취하고, 왕국을 확장한다 해도, 궁극적으로 그를 무너뜨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에 그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러한 사고

방식이 전도서의 지혜의 핵심이자 중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미래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운명도 주관하십니다.

그럼 이를 반영하는 몇 구절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방금 읽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 읽은 일부 구절과 많은 부분이 일치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통제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극적으로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현명한 사람은 전혀 모른다. 3장 22절, 그러므로 내가 보니 사람이 자기 일을 즐기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그것이 자기의 분깃이니라.

그건 그렇고, 여기에는 매우 흥미로운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 강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도록 그를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모른다.

6장 12절, 사람의 평생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짧고 의미 없는 며칠 동안 그는 그림자처럼 지나간다. 이런 맥락에서 강조되는 것은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는 삶이 아니라, 무거움의 덧없는 본성이 강조된다는 점입니다. 그가 죽은 뒤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그에게 알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지나가고 있으며, 죽은 뒤에는 해 아래서 아무 활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자신의 시대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8장 7절, 장래 일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 장래 일을 누가 알려 주겠느냐? 바람을 제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듯이, 죽음의 날을 제어할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죽는 날에는 어느 누구도 권세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통해 자신의 주권을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나타내십니다.

그가 언제 죽을지, 어떤 상황에서 죽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9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이 모든 것을 곰곰이 생각하여 의인과 지혜인과 그들의 행하는 일이 다 하나님 손에 있고 주권도 하나님에게 있으니 사랑할 것인지 미워할 것인지는 사람이 알지 못함이니 사람의 지식이 부족함이라 하였느니라 미래에 관하여. 10장 14절, 장래 일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그에게 말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11장 2절에는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누어 줄지니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전도서에 나오는 속담 속 지혜의 상당 부분은 자신의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극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는 현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재산에 대해 통제력이 부족하다는 점 외에도, 전도서에서 코헬레트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나이를 넘어서는 지속적인 유산을 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1장과 11절에서 우리는 코헬레트가 지옥의 세계에서 해 아래서 삶의 순환적 성격을 다룬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진술을 발견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지속적인 유산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2장 16-21절에서 우리는 16절에서 이 개념을 다시 발견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우매자와 같이 오래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 날 둘 다 잊혀지리라.” 바보처럼 현명한 사람도 죽어야 한다.

그리고 9장 6절에 보면, 그 사랑함과 미워함 곧 사람의 행위와 시기함이 사라진지 오래라 하였느니라. 그들은 다시는 해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헬레트는 인간이 이 필멸의 존재에서 오래 지속되는 어떤 것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괴로워합니다. 게다가 인간은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활동과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는 능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따라잡는 방식으로 이 일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즉, 남자가 절대로 주장할 수 없도록 알아낸 것입니다. 나는 신을 통제할 수 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인류의 미래와 재산을 통제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에 반영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더라도, 할 수 없더라도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매우 실용적인 방법으로 탐색하려는 일종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과 그 자신의 미래에 일어날 일이나 일어날 일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무능력을 입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에서 발생하는 매우 어렵고 힘든 사건과 상황을 가장 잘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가능한 지혜를 제공하는 지혜를 발견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8장과 11절부터 14절은 범죄에 대한 판결이 속히 집행되지 않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는 계략으로 가득 차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사람들은 현재 신이 정하신 정의가 부족한 것처럼 보일 때 더 많은 악을 행하고 더 많은 악을 행하려는 동기를 갖게 됩니다. 비록 악인이 백 가지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여전히 장수하지만, 즉 코헬렛은 악인이 그 일을 면하는 것을 관찰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더 잘될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경외한다는 개념은 우리가 나중에 탐구하게 될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제와 별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잘 되지 못하고 그들의 날이 그림자 같이 장구치 못하느니라. 그래서 내가 보기에 코헬렛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낫다는 점을 관찰하고, 비록 그가 잘못된 것들을 관찰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점에서 일반 지혜와 매우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운명을 유혹하지 않거나 운명을 더 유신론적인 방식으로 표현하여 하나님을 유혹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이전 강의에서 이 그림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 남자는 매일 도넛을 먹으면서 일정 기간 동안만 도망칠 수 있고, 결국에는 그를 따라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kohelet의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평생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아도, 그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아도, 그 사람이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은 식으로 먹는 것을 보아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든 여자든 건강한 식습관, 운동, 오래 지속되고 활동적인 삶을 제공하는 일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임을 아십시오.

그래서 코헬렛은 일반성이나 지혜의 일반적인 규칙에 대한 예외를 관찰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는 것이 더 나은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운명을 유혹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유혹하지 않는다는 이 개념은 7장과 거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지혜의 일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7장 15절입니다.

나의 이 악한 삶에서 나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보았습니다. 의인은 자기의 의로움 가운데서 멸망하고 악인은 자기의 사악함 가운데서 장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의를 행하고, 악인을 땅에서 끊고, 의인을 뿌리 뽑고 고양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하나님이 행해야 할 일에 대한 지혜의 기대에 대한 예외를 보는 이 생각, 코헬렛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예외를 관찰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왜 자신을 파괴합니까? 지나치게 사악한 사람이 되지 말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왜 시간이 되기 전에 죽나요? 하나를 잡고 다른 하나를 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극단을 피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이러한 진술은 종종 일종의 황금 의미를 암시하도록 잘못 해석되어 왔다고 나는 믿습니다. 즉, 코헬렛은 너무 착하지도, 너무 나쁘지도 말라는 뜻이다.

알다시피, 코헬렛은 적절한 경건을 제안할 수 없는 일종의 퇴보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코헬렛이 여기서 말하는 것이 실제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NIV에서 번역한 파괴, 샤맘(shamam)이라는 단어는 놀라울 정도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즉, 일종의 연관성을 볼 수 있습니다.

도시가 파괴되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크게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발견한 것은 몇몇 번역본이 그렇게 번역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왜 충격을 받았나요? 왜 놀랄까요? 왜 자신을 놀라게 합니까? 왜냐하면 그가 이전 절에서 방금 말한 것은 그가 무엇을 관찰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까? 의인이 자기의 의로움 중에 멸망하느니라. 신이 통제하고 종종 수수께끼 같은

세상에서 무의미하고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헤벨 이라고 부릅니다. 코헬렛은 확실히 그렇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때때로 그들의 의로움 가운데서 멸망하는 그런 세상에서, 당신의 의로움이 장수와 풍요로운 삶을 보장한다고 믿지 마십시오. 모든 일이 잘 될 것이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더 낫다고 Kohelet은 선언합니다. 그는 정상적인 기대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지만 규칙에 대한 예외를 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의가 번영과 장수의 보장이 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완전히 놀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보처럼 굴지 마십시오. 바보처럼 굴지 마세요.

악을 넘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이 땅에서 끊어지지 말라. 왜 시간이 되기 전에 죽나요? 하나를 잡고 다른 하나를 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즉, 이생에서 현명한 일이 무엇인지 인식하되, 자신의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잘못된 확신을 갖고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의롭게 앞으로 나아갈 때에도, 브로콜리를 먹고 매일 5마일을 달릴 때에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다음 달릴 때 차에 치일 수도 있습니다. 즉, 미래에 대한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균형, 이런 종류의 긴장은 코헬렛서에 나오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신학을 반영하는 가장 앞부분과 중앙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비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의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즉, 어떤 대답이 있습니까, 그리고 변증학은 확실히 이러한 것들을 탐구합니다. 왜 의인이 때때로 그들의 의 가운데 멸망하고 왜 악인이 때때로 그것을 피하는지 설명하는 대답이 성경에 있습니까? 왜 좋은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욕기는 이것을 어느 정도 탐구하지만, 욕기가 왜 고난을 당했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신학적인 방식으로 언급된 적이 없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사실, 욥기의 이야기 부분과 욥기의 이야기 부분, 욥기 끝 부분에서 욥은 책의 시작 부분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일어나는 도전에 결코 관여하지 않습니다. 즉, 욥은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욥, 이것이 그들이 했던 방식으로 일어난 이유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그랬던 것처럼 무너진 이유입니다.

사실, 욥은 단순히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시고, 이유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 책의 시작 부분에서 일어난 사건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사람에게 모든 답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사람에게 모든 답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악한 세상에서 때때로 나쁜 일, 즉 인간 이성을 모욕하는 일, 아주 명백히 사악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한 설명과 가장 가까운 설명을 성경에서 찾은 것은 3장과 14절에 있습니다. 3장 14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압니다. 거기에 아무것도 더할 수도 없고, 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그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제한을 가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인류가 결코 '내가 알아냈어, 내가 할 수 있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제대로 된 발판을 마련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다시 바벨탑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나는 신이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바벨탑의 순간을 가질 정도로 지혜가 뛰어나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인간에게 한 가지를 선택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코헬렛서에 나오는 하나님과 인간의 신학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인류에 대한 제한의 부과에 대한 일종의 무료 주제 또는 모티브로서 코헬렛은 책 전체에서 시간 문제를 탐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간 문제를 탐구하는 데 몇 분의 시간을 할애하고 싶습니다. 특히 그것이 시간에 관한 시의 3장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장 1절에 천하에 범사가 다 때가 있고 모든 일이 이를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며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참을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으며 간직할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으며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 중 많은 분이
 매우 정돈된 방식으로 이진 쌍을 찾는 이 시에 익숙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서에서 발견되는 일종의 독립적인 문학적 단위라는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시간에 대한 이러한 이진 쌍이 수평 세계에서 시간 관계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는 매우 수수께끼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석하기가 매우
 어려운 텍스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 하나는 시간이라는 용어의 유동성과
 본질적인 모호성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et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 시간도 여러
 가지 유연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시공간 연속체에서 한 시점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즉, 2016년 6월 21일 8시입니다. 과거에 발생한 특정 사건이나 미래, 미래 날짜에
 발생할 것으로 예정된 특정 사건을 지칭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미래의 시점에.
 하지만 시간에 관해 좀 더 실질적인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시간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3피트 정도 눈이
 내렸다면 그때를 스키를 타기에 좋은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적절한
 의미로 시간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시간보다 일찍 죽으면 우리는 다소 덜 명확한
 방식으로 시간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이 80세, 90세, 100세에 죽는다면
 반드시 특정한 날짜를 가리킬 필요는 없지만, 뭐, 그때가 죽기 좋은 때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즉, 지금은 죽기에 적절한 때이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20세, 30세, 40세에 죽으면 우리는 그 사람이 자신의 나이보다 일찍 죽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어에서도 매우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시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개입의 일부 측면을 반영하며, 시간이 인간의 개입의 일부 측면과 둘 사이의 긴장을 어떻게 반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간에 관한 시에 이어 이어지는 주석에서 코헬렛이 실제로 하나님의 개입과 인간의 한계를 성찰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9절에 보면, 일꾼이 수고함으로 무엇을 얻겠습니까? 거기서 우리는 히브리어 단어 이 트론(yitron)을 다시 한 번 발견합니다. 즉, 그의 모든 활동에는 이트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담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 'inyon'입니다. 전도서에서 이 단어가 네 번 사용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네 번 모두 인류에게 부과된 한계를 가리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원하는 바는 이러한 것들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하나를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으신 짐인 인욘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나는 여기서 아름다운이라는 단어가 아마도 가장 적합하게 번역되었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제때에 적합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람의 마음에 영원을 생각하게 하셨으나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전도서에서 인간이 적절한 때에 이러한 일들을 알아낼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중심에 있는 여러 부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우리가 이 부분에 캡슐화되어 있는 즐거운 삶의 자제의 세 번째 예라고 믿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았나니 이는 사람으로 먹고 마시며 수고하고 수고하는 가운데서 만족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는 인간의 활동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압니다. 거기에 아무것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그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다시 우리는 시간과 하나님의 활동, 인간의 일, 그리고 서로의 관계에 관련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성찰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에 대한 시를 탐구하면서 코헬렛이 시간에 대해 어떤 의미로 성찰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다시 떠오르는 것은 흥미롭다. 그리고 Kohelet의 시간 강조와 관련하여 적어도 제가 생각해낸 약 5가지 다른 옵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시가 신의 결정론을 따르도록 제때에 해석합니다.

즉, 신은 일이 일어나는 시기를 결정하므로 시간에 관한 시는 시공 연속체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실제 시기를 신이 통제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즉 신적 결정론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전도서 전체에 걸쳐 적어도 어느 정도 수준의 신적 결정론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제안하는 많은 구절을 읽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순환적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설립이 시간에 대한 시의 전면이자 중심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이 이전 시인 1장 4절부터 11절까지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코헬렛은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순환적 성격, 심지어 자연에서 발생하는 순환적 패턴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기적 사건을 정하셔서 그 때에 따라 일이 일어나도록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이 일어나도록 결정하시되,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일어나도록 결정하십니다. 또 다른 선택은 일이 적절한 때에 일어나도록 하는 하나님의 적절한 계획이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어지는 주석에서 3장과 11절에 의해 확실히 뒷받침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제때에 적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패턴을 정하시면서 일이 일어날 적절한 시기도 정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옵션 모두 시간에 맞춰 시의 주제가 신임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옵션 세트는 시간이 지나면 인간이 시의 주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예를 들어, 시간에 대한 시는 적절한 시간에 사물에 반응하는 지혜의 역할을 반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현명한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지 알기 때문에 언제 행동해야 할지를 압니다. 또는 좋은 결정이나 좋은 타이밍을 보여주는 데 있어 지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즉, 현명한 사람은 적절한 시기에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꼭 시간의 적절성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결정을 내리고 적절한 시기에 추진하는 데에는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이는 마치 여러분이 2009년이나 2010년에 미국에서 부동산을 샀다면 가격이 폭락하기 직전에 가격이 올랐던 2007년에 부동산을 샀을 때보다 아마도 더 나은 타이밍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시간의 적절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타이밍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모두 시간에 맞춰 시에 반영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들 중 어느 것도 모든 바이너리 쌍에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신적 결정론에 따르면 태어날 때와 죽을 때를 나타내는 3장과 2절에는 그 때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실 코헬렛은 책 전반에 걸쳐 인간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의 시기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는 시기를 정하는 것은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다른 예에서는 시간의 결정이 실제로 반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특정한 때를 정하신다는 의미에서, 심고 뽑을 적절한 시기를 결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예에서는 순환적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적 설립이나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적절한 계획이 가장 잘 반영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장에서는 심을 때와 뽑을 때를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분은 계절을 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일이 일어나도록 적절한 시간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시의 이분법적 짝짓기의 다른 예에서 하나님의 적합성이 아마도 가장 앞장서고 중앙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이것을 하거나 저것을 하기 위한 적절한 시기를 결정하는 주체로서의 인간, 인간의 활동, 또는 지혜의 활동이 더 적절한 접근법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다른 예를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3장과 5절에는 포옹할 때가 있고 삼가할 때가 있습니다. 포옹할 때와 삼가할 때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포옹할 때와 삼가할 때를 안다.

또는 3장 8절에서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를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안다. 아니면 좋은 타이밍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장과 7절에는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말하고 침묵해야 할 적절한 때를 알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을 하는 데에도 좋은 타이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면 3장과 6절에서 탐색할 시간과 포기할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타이밍이 아마도 가장 앞장서고 중앙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점은 시간에 대한 시가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통제와 관련하여 인간, 현자로부터 적절한 반응이 있다는 생각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긴장과 관계는 전도서 전체에 걸쳐 매우 포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을 내리고 싶은 흥미로운 점 하나가 있습니다.

시간에 관한 시에서, 단위 자체가 괄호로 묶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개 강의 앞부분에서 인클루시오라고 불렀으며, 1절에 있는 모든 일의 시간과 모든 활동의 시간에 관한 진술로 하늘 아래서 괄호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서 우리는 코헬렛이 곰곰이 생각하는 포함의 뒷부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마음 속으로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모든

활동에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행동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문법적으로나 어휘 측면에서 보면 매우 유사하며 1절과 17절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헬렛이 17절의 관찰과 묵상에서 실제로 괄호를 묶고 의도적으로 1절로 다시 주의를 끌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 모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활동, 모든 행동을 위한 시간. 따라서 때를 결정하고 때와 인간의 반응, 지혜의 반응을 조율하는 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시기와 일을 하고 모험을 시작할 적절한 때를 아는 것에도 여전히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에서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며, 그것이 적절한 때에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의인은 피하고, 의인은 그의 의로움 가운데서 망할 때도 있고, 악인은 면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헬렛은 결산의 날이 올지 고민합니다. 그리고 전도서는 결산의 날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기 위해 한계를 밀어붙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존재의 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사후 존재의 시간, 즉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전도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티브를 탐구하면서 그 문제를 탐구할 것입니다.